전주국제영화제 폐막… 연일 '매진사례'

관객수 7만명 돌파

좌석 점유율 80%

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영화제는 45개국 211편의 작품이 4개 영화관에서 503회차에 걸쳐 상영됐으며, 이 중 219회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15회영화제 최다매진기록인 214회차를 경신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영화를 본 관객수는 7만1000여명으로 약 79%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다.

올해 전주영화제의 큰 화두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것이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최승호 감독의〈자백〉과 해직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 투쟁기〈7년-그들이 없는 언론〉, 제주우도 해녀들의 삶을 담아낸〈물숨〉, 기술 진보 대한 어두운 전망을 표현한 마우로 에르세 감독의〈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야외상영장에는 개막작 로버트 뷔드로 감독의〈본 투 비 블루〉, 이준익 감독의〈동주〉, 채드 하티건 감독의〈미국에서 온 모리스〉등이 상영됐고 이들 작품은 탄탄한 연출력으로 관객들의 애정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화의 거리 내에 공간 활용은 미흡해 영화제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화를 매개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라운지와 야외상영장은 한 곳에 자리해 최적의 동선을 그렸다.

하지만 스피커와 스크린의 선명치 못한 음·화질은 행사와 공연의 몰입을 저해했다. 특히 전주라운지는 청중과 대면하는 행사공간으로 활용될 시에는 더욱더 그러했다.

또한 오거리 광장의 랜드마크격인 '전주영화 영상 조형물'은 인포메이션 부스에 가려 상징성이 희석됐다.

이에 대해 이모씨(서울 거주, 30세)는 "현수막을 제외하면 영화의 거리 초입 부분부터 축제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 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영화제 홍보 조형물도 예전 모 방송국 앞의 빨간 로고와 엇비슷해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영화제는 영상 미학의 축제인 만큼 볼거리 하나에도 세세한 전시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오거리 근처에 자리한 고속버스터미널 왕복 셔틀버스는 하루 31번, 매 15분마다 운영되지만 이용객들의 수요가 적었다.

버스운행 관계자는 "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명 남짓하다. 한 번 순환 시 5명 안팎인 경우도 허다해 노선의 서비스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을 이어 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죽거나 혹거나:디지털 리마스터링 상영을 마지막으로 사위어갔다. /정해은 기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최승호 감독의〈자백〉과 해직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 투쟁기〈7년-그들이 없는 언론〉, 제주우도 해녀들의 삶을 담아낸〈물숨〉, 기술 진보 대한 어두운 전망을 표현한 마우로 에르세 감독의〈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김택곤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 취임

김택곤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가 9일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간다.

김택곤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JTV를 명실상부한 전북의 대표방송으로 이끌어 지역발전과 전통문화의 발굴, 지역사회 여론의 형성, 환경감시 등 지역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청자 중심의 방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택곤 대표이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MBC보도국장과 광주MBC 사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2014년부터는 극동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정해은 기자

CGV 전주스테이지에서 열린 시상식

국제경쟁 대상 '샌드스톰'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수상작 11편 발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5일 오후 6시 CGV 전주스테이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쟁부문 주요 수상작 11편을 발표했다. 국제경쟁 심사위원장 장 프랑수아 로제는 "국제경쟁 부문은 세계 각국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한 작품들이 돋보였다. 자주 볼 수 없는 사회의 단면들을 조명하는 감독들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심사후기를 피력했다. 국제경쟁 대상작으로는 일리트 젝세르 감독의〈샌드 스톰〉이 선정됐다.

감독은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일이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관객들이 생각해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찬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경쟁 작품상은 현대인의 단조롭고 무료한 삶을 조명한 테드 펜트 감독의〈쇼트 스테이〉, 국제경쟁 심사위원특별상은 카자흐스탄 10대들의 지난한 삶을 묘사한 에미르 베이가진 감독의〈상처받은 천사〉에게 각각 돌아갔다. 마우로 에르세 감독의〈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는 특별언급 되었다.

한국경쟁 대상은 이현주 감독의〈연애담〉과 고봉수 감독의〈델타 보이즈〉가 공동수상 했고, 한국단편경쟁 대상은 이지원 감독의〈여름밤〉이 선정됐다.

이현주 감독은 "데뷔작이 이 곳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화를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무대에 오른 고봉수 감독은 "영화인들이 내 영화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영화작업을 계속해갔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밝혔다.

한국경쟁 본선작에 시상하는 'CGV 아트하우스상'은 1천만 원의 상금과 CGV 아트하우스 마케팅을 현물로 지원하는 '배급지원상'과 차기 작품의 기획개발비로 1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창작지원상'이 있다.

배급지원상은〈물숨〉, 창작지원상은〈델타 보이즈〉에게 각각 돌아갔다.

심사를 맡은 CGV 아트하우스 박지예 팀장은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물숨〉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길 바라며, 〈델타 보이즈〉는 영화 뒤 연출자가 궁금해지는 영화"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타이틀 논란속 "제목 그대로"

지난 7일 개막한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가 비상이 걸렸다. 공연 타이틀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MBC가 팍스컬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시청을 4일 받아들였다.

MBC는 자사의 라디오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자사의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제목이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지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타이틀은 사용할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MBC와 공동 주최를 추진한 팍스컬쳐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MBC 스스로 발굴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1889년 6월 고흐가 그린 명작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것"이라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팍스컬쳐는 관계자는 "공연가처분을 통지에 대해 항소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9일 제소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상표권은 2008년 소멸됐다. 팍스컬쳐는 2013년 '별이 빛나는 밤에' 공연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제작사 팍스컬쳐는 "공연이 임박한 만큼 '별이 빛나는 밤에'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그램 제목을 딴 공연 제목을 놓고 방송사와 공연기획사 간 갈등은 종종 있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MBC가 '토토즐 슈퍼콘서트'를 기획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는 지난 1985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매주 1회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제목으로 음악예능방송프로그램을 방송했다. 2014년 말 MBC TV '무한도전'의 코너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통해 90년대 가수들이 재조명되자 공연기획사는 90년대 인기를 끈 가수들을 내세운 공연을 기획하면서 '토토즐'을 내건 바 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포스터

한편,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는 80~90년대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대학가요제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뮤지컬 활동을 병행하는 홍경민, 조권 , 다나 등 가수들이 나온다. 15일까지 열린다.

/이성주 기자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 첫 선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전을 오는 6월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영국문화원이 함께 주관한 이 전시는 영국 정부의 국가 홍보 사업인 더 그레이트 브리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다.

토마스 헤더윅(46)은 가구와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도시 설계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까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여 주목 받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영국 디자인계의 거장 테런스 콘란 경은 그를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전은 토마스 헤더윅이 지난 21년간 세계 곳곳에서 선보인 수많은 작품 중 엄선한 26개의 주요 프로젝트 전 과정을 보여준다.

드로잉, 테스트 모형, 1:1 사이즈 구조물, 사진과 영상 등을 소개한다.

1994년 설립한 헤더윅 스튜디오는 런던의 심장부인 킹스크로스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건축설계사, 디자이너, 제작자 등 180여 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5월 9일〉

▷쥐띠
48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
72년생: 문서에 길신이 돌아오는 운.
84년생: 일적인 능률이 올라가는 운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소띠
49년생: 식록이 좋은 운.
61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73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85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비우고 내실을 다져라.

▷호랑이띠
50년생: 부부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라.
62년생: 윗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
74년생: 겉으로는 서로 좋은듯 하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정신이 맑고 뚜렷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은 미뤄라.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는 운.
63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운으로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 미리 대비하라.
75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운이다.
87년생: 금전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좋은 문서로 인해 경사가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외부적으로 이득이 많으니 적극 활동하라.
7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이성의 도움으로 이겨나간다.
88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하자.

▷뱀띠
53년생: 베풀면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미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길성이 비추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9년생: 건강에 대하 신경써라.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아라.
68년생: 윗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92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니 마음을 다스려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69년생: 변동을 가지면 흉한일이 많다.
81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니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라.
93년생: 좋은일 했다가 뺨 맞는 격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개띠
46년생: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58년생: 문서에 좋은 운이 들었으니 계약을 하기에도 좋고 이동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7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돼지띠
4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59년생: 식록이 따르는 운.
71년생: 소홀해던 동기간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라.
83년생: 매사 서두르면 불리하니 급할수록 차분해지는 것이 좋겠다.